

“팔만대장경 음악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집대성한 팔만대장경을 국악이나 록 재즈 등의 음악으로 듣는다면 한결 귀에 속속 들어올까.

세계문화유산인 해인사 팔만대장경이 음악으로 만들어진다. 오는 5월 호암갤러리에서의 팔만대장경

중들의 예불소리를 비롯 간경(看經) 아침종성 아비라기소리 법고 운관 등 사물과 종경소리 등 해인사 고유의 20여 소리가 실릴 예정이다. 이미 해인사현저에서의 녹음을 마친 상태. 2집은 팔만대장경의 태동, 수난과 현재와 미래의 모습이

대장경연구소 부소장 한기승님의 작곡의뢰를 받고 즉석에서 수락했다는 김수철씨는 “팔만대장경이 불교인들 것만이 아니라 정국민의 문화라는 인식과 세계문화재로서의 소중한 가치인식이 의외로 너무나 미약한 현실이 안타까웠다”고 말한다.



한기승

법고·국악·재즈·레게 등 동서고금 선율 하모니 김수철씨 작곡... 5월부터 테이프·CD로 출간

전시회 맞춰 선을 보이게 될 팔만대장경 테마음악은 민족의 성보 팔만대장경의 가치와 중요성을 음악이라는 장르를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친숙케 하기 위한 인식교류의 일환으로 준비되고 있다. 작곡은 대중음악계의 ‘작은 거인’으로 불리는 가수 겸 작곡가 김수철씨(40).

국악과 양악이 서로 어울려 이루어질 팔만대장경 테마음악은 모두 4집으로 기획되고 있다. 1집은 법고 종찰 해인사소리 모음집, 해인사 대

장중한 정악위주로 작곡된다. 여기에는 아쟁 대금 등 전통국악기가 사용될 예정이다. 3집은 보다 대중성있게 청소년위주로 제작되는데 록 재즈 레게 등의 음악형식이 가미되며, 4집은 유럽과 미국 등 서구인에게 어필할 수 있게 제작된다. 1집과 2집은 오는 5월초 CD와 테이프 출시되며 3집은 오는 8월, 4집은 오는 11월 선보인다.

팔만대장경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받은 직후인 지난 95년 12월

다. ‘대장경이 친숙한 음악으로 표현된다면 누구든지 가까이 하여 우리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김씨는 “불법의 상징인 팔만대장경의 심오한 슬결과 이를 만든 우리 민족의 슬기를 깊이 있고 다양한 선율로 표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화 ‘서편제’와 88 서울올림픽, 대전 엑스포와 지난 겨울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 주제음악 등

큰 대회의 음악은 대부분 도발적인 감성은 법고 등 불교음악에도 조화가 깊다. ‘아시아소리변천사’를 연구해 오고 있다고 밝힌 김수철씨는 “팔만대장경 테마음악을 우리 고유음악의 특징을 잘 살리면서도 대중성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필생의 대작으로 만들겠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경숙 기자



대구 관오사에서 매주 화요일 열리는 흥승스님의 사찰음식 강좌.

사찰음식 배우기 ‘봄’

수호사·관오사 등 매주 강좌 비디오·책 등 잇달아 발간

여는 사찰음식 강좌에는 각각 40여명 이상의 주부들이 참여하며 배움의 열기를 높여가고 있으며 봄의 요정으로 오는 29일 ‘신재스님의 푸른 맛 푸른 요리’는 ‘효자프로그램’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시청자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또 한국사찰음식문화연구소(02-245-0904)는 신도들의 요청으로 오는 29일 오후 2시 무애원(주지 설봉)에서 사찰음식 강좌를 위한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엠버서더호텔 한국요리사인 이서운씨가 강의하는 수호사 사찰음식 강좌는 3개월 코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최되는데 사찰음식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통해 통통사찰음식을 배우는 기회, 흥승스님(대구 동화사 부도암)이 맡고 있는 관오사 사찰음식 강좌는 매주

화요일 개설되는데 쉽게 가르치는 조리법 강의와 강의 사이사이 마음다스리는 생활법문이 곁들여지는 것이 이채. 개국대부터 ‘날마다 좋은 날’ 프로의 한 코너를 장식하다가 인기가 높아지는 바람에 지난 가을부터 단독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은 ‘신재스님의 푸른 맛 푸른 요리’는 매주 금토 12시 10분부터 방영되는데 몸에 유익한 재료를 사용한 사찰음식 특유의 조리법은 물론 현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건강정보가 곁들여져 인기를 끌고 있다.

사찰음식 강의들은 대부분이 향료와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특유의 음식맛을 내는 조미법과 약이 되는 식물 이용 음식만들기, 발효한 만들기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강좌개설 불과 더불어 사찰음식 조리법을 상세히 알려주는 사찰요리 책들이 권위있는 사찰음식 전문가들에 의해 잇달아 출판되어 차적으로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봄은 이달말 ‘신재스님의 푸른 맛 푸른 요리’ 프로를 엮은 비디오와 책을 펴 낸다. 사찰음식연구회 김연식씨(전통음식점 ‘산촌’ 대표) 역시 우리출판사에서 전통사찰요리법을 알려주는 ‘사찰음식’을 발간할 예정이다. 사찰음식문화연구소장 적문스님은 오는 4월 대원사 ‘빛깔있는 책들’ 시리즈로 ‘사찰음식’을 펴 낸다.

한국문화재보존재단은 창립15주년 기념사업으로 <한국음식의 개관>을 발간하는데 제6권인 ‘중국의 식생활 사찰의 식생활’ 편을 먼저 출간 추진키로 발간한다. ‘... 사찰의 식생활’에는 사찰음식의 이론적 배경, 바루공양외식, 조리법 등 사찰음식이 전반적으로 소개된다.

이경숙 기자

는 그와 같은 문화전통을 계승하는 데서 찾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보면 전통을 계승한다면 지 난날의 작품을 그대로 모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본다. 이것은 잘

불미전의 내일



홍윤식

“전통기법 토대 새양식 창조하자”

못된 일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전통의 계승이란 지난 날의 문화양식을 그대로 전승하는데 있지 않고 부단한 발전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신라시대의 불교미술, 고려시

대의 불교미술, 조선시대의 불교 미술 등은 각기 그 양식을 달리하면서 우리의 문화전통을 잘 계승하여 온 것이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에 불교미술의 전통을 계승한다

위한 작품의 공모도 불미전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라 하겠으나 그것은 오늘의 우리 사회에 불교미술의 전통이 어떻게 올바르게 계승되고 있는나 할 수 관계가 깊다. 즉 불교미술의 문화전통이 굳건히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새로운 불교미술에 대한 주제와 기법의 방향 설정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불교미술이란 전통적인 기법이 되었건 현대적 기법에 의한 현대미술작품이건 오늘날 사는 현대인이 불교적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름다움의 세계를 창조해 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불교미술공모전은 보다 확실한 목표의 설정이 필요하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장>

이경숙 기자

3월19일부터 공평아트센터에서 제16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이하 불미전) 입상작들이 전시되고 있다. 불미전은 연례으로는 27년을 맞는다. 불미전을 통해 많은 불교미술인이 배출되었고 불교미술계의 영역이 괄목할 만하게 확장되었다. 그리하여 이제는 불교미술에 대한 많은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을 본다.

이와 같은 일은 불교미술의 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번 불미전의 심사위원으로서 출품된 작품들을 보면서 불미전의 의의가 어디에 있으며 그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가야 하는지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움을 느낀다.

우리나라 불교미술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전통미술을 대표한다는 데 있다. 그러기에 불미전의 의의

“제주문화 발전위해 음성포교”

제주불교음악인협 흥영희 초대회장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음악활동을 하고 상호협조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해 모임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하고 각종 문화행사를 주관·후원하는 물론 음악단체 조직강화에 주력할 것입니다.”

제주불교음악인협회 초대회장 흥영희씨(제주 대학교 교수)는 불

교음악을 통한 지역문화 발전과 자비 화합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포교 사로서의 각오를 다지는 것으로 취임소감을 대신했다.

지난 2월 27일 태고불교회관에서 창립법회를 가진 제주불교음악인협회의에는 극락사 관음정사 바수말다 합창단 등 도내 15개 합창단 지휘자 및 연주자 3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

하고 있다. 지역의 불교음악인들이 모여 모임을 결성하기는 제주가 처음이다. 2년전 비슷한 성격의 모임이 만들어졌으나 회원들의 참여가 조로 유야무야했다. 제주불교음악인협회는 대외적인 첫 사업으로 오는 5월 부처님오신날 대합창제를 기획하고 있다.

“음악은 만인의 공동언어입니다. 봉축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로 제주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성공양을 나누는 거룩한 법석을 펼치고 싶습니다.”

제주=정성운 기자

불교회곡 ‘동승’ 영화 만든다

4월부터 선암사에서 촬영... 주경중감독 메가폰

어머니에 대한 사미승의 간절한 그리움을 통해 해탈의 열원을 추구한 불교회곡 ‘동승(함세덕 작)’이 영화화된다.

최초의 광주촬영 영화 ‘부활의 노래’를 연출한 감독 주경중씨(씨네클럽)가 메가폰을 쥐게 될 ‘동승’은 최근 시나리오작업을 끝내고 오는 4월부터 순천 선암사 일대에서 촬영에 들어간다.

1930년대 월북작가 함세덕에 의해 쓰여진 희곡 ‘동승’은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평가받았으나 함세덕이 월북작가이기 때문에 그동안 상연 금지되었다가 90년 이후 해금, 지난 92년 극단 연우마당에 의해 연극으로 상연돼 호평을 받았다.

주경중감독은 “불교영화는 지리

하고 재미없다는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해 영상미와 내면연기로 승부를 걸어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어 해외시장에서 그 진가를 확인하겠다”고 밝힌다.

총 제작비 10억원이 들어갈 영화 ‘동승’의 주지스님역에는 TV 드라마 ‘천관한 여명’의 주인공 동진스님역을 맡았던 영화배우 김갑수씨, 어머니역에는 현재 SBS 주말드라마 ‘꿈의 궁정’에서 춘수연기로 인기를 얻고있는 이용경씨가 유력하다. 어린 동승과 주위 스님들역은 사찰음을 살리기 위해 스님연기자를 공모하고 있다. (02)929-1070

기사남쳐 ‘불심사심’ 쉽다.

산수화 대가故 이상범 탄생 백년

우리의 산화를 우리의 정서에 맞게 표출해 낸 근대 한국 산수화의 대가 청천 이상범(1897~1972)탄생 1백주년 작고 25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오는 4월 20일까지 호암갤러리에서 열리는 청천 이상범전은 1919년 초창기 작품부터 작고하기 전 작품까지 시대별 대표작 70여점이 출품돼 한 작가의 독자적인 양식이 확립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그동안 기록으로만 전해오던 ‘충무공 영정’과 산화, 인물스케치 등도 함께 전시된다. (02) 750-7856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 고봉선 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 후 3년 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 등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불교인들의 민심,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봄이 오는 소리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大地를 적시는 빗방울 소리 가슴에 와 머문다. 조그만 풀잎 끝에도 따뜻한 삶의 숨결이 살아 숨쉬고 천바람 불어오던 겨울은 지나고 겨울을 끝 녹아 내리는 청아한 여울 물소리

원장 이자임

바들 가리지도 겨울잠 깨고 앞망울 터뜨리는 속삭임 상큼한 봄 내음 생기를 머금고 봄벌 따스한 온기가 大地를 포근하게 감싸며

대추, 초·재혼 신원 확실히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거주 불자들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하늘은 푸르고 구름은 노래하며 바람은 춤을 춘다 내 그리움 또한 그속에 머물고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합장 (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

너럭바위

너럭바위 茶 생활 총서

한국茶文化

다생활 총서-① 한국 차 문화 정영선책
값: 8,000원

다생활 총서-② 다도 철학 정영선책
값: 7,800원

도서출판 너럭바위
Tel (02)563-4538
Fax (02)562-7198
계좌번호:(농협)366-02-011872

천천옥산가옥의 신비!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인 뇌내 모르핀 분비를 활성화시켜 모든 병을 호전시킵니다.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짜릿짜릿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 내몸-부처님도드릴 이 기쁨을 청정하게 기쁘시다 (SOD 청정작용 때문에)
- ★ 혈액순환을 도와 모든 성인병의 근원을 제거한다. (체내노폐물 제거 때문에)
- ★ 현대인의 불안, 초조, 신경질, 화병 또는 노화방지에... (뇌내 모르핀 활성화 때문에)
- ★ 장력력, 집중력, 골다공증이 잡혀갑니다. (조금의 차이도 1바를 이깁니다)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결과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물면증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 91.3%, 어지러움증91.3%, 두통83.3%, 고혈압77.8%, 관절염60%의 놀라운 치료 효과를 기록했다. (93. 2. 17 서울신문)

유전자 유이 이익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후유증 없이 전유는 예방을 하십시오. (미국 FDA)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브라운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777-0105 (우원린)